

뛰어난 정치적 감각 직설화법 화 부르기

SWOT분석

자유한국당 **홍준표**

박 정권과 거리... 보수 단일화 주장

탄핵 정국 안보이슈 최대 기회로

성완중 리스트 판결은 위협 요소



“당당한 서민 대통령”

2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1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공세 위주 국방 전환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 2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정책, 최저임금 1만원 단계별 인상
- 3 가정보육수당 2배 인상,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 4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
사범시험 존치, 저소득층 학생은 취업 때까지 국가가 지원
- 5 서민 복지 확대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독거노년 노후 생활 지원
- 6 소상공인 보호
골목 상권 보호,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 7 사회 부조리 차단
검경 수사권 조정, 흥역법 사형 집행
- 8 청정 대한민국
식수샘 건설 통한 1급 식수 공급
- 9 4차 산업혁명 선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설, 지자체·민간으로 국가 사무 이양
- 10 대한민국에 활기를
돌려주기 1000만원 지원, 청년·신혼부부 100만호 주택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강점은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다. 그는 계파 없이 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최고위원에도 올랐다. 이번엔 대선 후보까지 됐다.

정치권에서는 계파 없이 대선 후보로 오른 후보는 여야를 통틀어서 자신이 처음이라는 홍후보의 발언이 과언은 아니라는 평이다. 나설 때와 들어가야 할 때 정치적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그의 강점. 이러한 것도 정치권에서는 귀중한다.

그러나 그의 직설적인 화법은 최대 강점이면서도 약점으로 꼽힌다. 보수 지지층이 아닌 유권자에게는 '막말'로 불리며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최근 당에서는 전략을 수정해 홍후보는 포지티브 언행으로 선회하고, 당에서 네거티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홍후보의 기회 요소는 박근혜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중앙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 정권 책임론에서 자유롭다. 이 점이 상대적으로 보수진영에서 홍후보의 지지율 높은 점이라고 평가한다. 이 점은 대선에서 보수후보 단일화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기회요소는 '안보 이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안보문제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홍후보에게는 플러스 요인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주변국 정치지도자들의 극우 국수주의 성향도 마찬가지다.

'성완중 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은 홍후보에게 큰 위협요소로 꼽힌다. 홍후보는 "대법원 판결은 사실성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나는 무죄"라는 논리로 받아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홍후보의 논리에 맞서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이 유죄처리의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를 두고 보수후보 단일화 대상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물론 진보진영 후보들은 홍후보 대선출마 자격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후보 지지세력의 지역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친박세력과 다소 분리돼 있다는 점도 그에게 위협요소다.

당내에서 친박을 포용하지 못하고 대결구도로 가게 되면 강경 보수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자타 공인 경제전문가 낮은 지지율 발목 잡혀

SWOT분석

바른정당 **유승민**

합리적 보수 외연 확장 장점으로

TK서 배신자 이미지 탈피 과제

정당·후보 지지 침체로 고전



“보수의 새희망”

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 1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육아휴직 3년분 도입,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 2 일하면서 대접받는 나라
칼퇴근법 도입, 최저임금 1만원 단계별 인상
-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전환, 소득 하위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 4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축소, 골목 상권 보호
- 5 혁신 중소기업, 튼튼한 자영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축소, 골목 상권 보호
- 6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 불안 해결
미세먼지 국가 대응 체계 정비, 원전 내진 설계 수준 강화
- 7 최강군 육성
사드 추가 도입, 비전투 분야 민간에 이양
- 8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
대학별 논술폐지, 자사고·외고 폐지
- 9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주택 재건축
- 10 헌법 정신 실현하는 정치 혁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 분권형 개헌, 공직자비리사수처 설치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후보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분석하면 주요 키워드는 개혁 보수, 경제 전문가, 낮은 지지율 등으로 압축된다.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부각됐던 경제 이슈는 대선을 앞두고도 유효한 상태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에 40년 가까이 경제학을 공부한 유 후보는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후보로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부분의 후보들은 다른 이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읽는 느낌이 강하지만 유 후보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만들고 실현할 방안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유 후보의 경제정책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합리적 보수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부각된다.

반면 부족한 점으로는 대선 출마 당시부터 따라다녔던 낮은 지지율이다. 일단 유 후보가 속한 바른정당 지지율은 5%대에서 정의당 지지율과 비슷한 3%로 하락한 상태다.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 후보는 당 지지율과 같은 3%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지지기반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TK(대구·경북)에서도 배신자 이미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유 후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일각에선 기회 요인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한국당 내 친박 세력 청산으로 바른정당과 연대 등이 유 후보에게 기회 요인으로 꼽혔지만 현재 유후보가 독자적 대선 완주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콘트론타워로 대선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처지 때문이다.

또 보수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표가 유 후보에게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점도 기회 부재 요인 중 하나다.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보수 유동표는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잠시 머물고 있는 상태다.

현 상태에서 유후보의 위협 요인으로는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무시할 수 없다.

대선 주자는 총 유효표수의 15% 이상을 얻어야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현재 유 후보의 경우 바른정당 지지율과 본인의 지지율을 합쳐도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인지도·호감도 높아 진보정당 확장성 한계

SWOT분석

정의당 **심상정**

국민 원하는 과감한 개혁 실천

25년 노동현장 경력 최대 강점

지지율 하위권 못 벗어나 속세



“노동이 당당한 나라”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 1 국민주권형 정치 개혁
국민소환·발안제 도입, 국민투표 대상 확대
- 2 조세 개혁과 재벌 개혁
부자 증세와 불로소득 과세, 정경 유착 및 갑질 근절
- 3 보육·의료·노후 안심 복지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 4 튼튼한 안보 균형 외교
사드 배치 철회, 전작권 조기 환수, 기무사령부 해체
- 5 사람 중심의 교육 혁명
유아 3년 공공육화 및 학제 포함, 고등학교 무상 교육
- 6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65세 미만 농민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7 고용 안전·차별 없는 사회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 해소, 고용 안전·소득 불평등 해소
- 8 성평등 사회 실현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9 탈핵 생태 사회
2040년 원전제로 실현, 원전에 동물권 명기
- 10 아동·청년·장애인·소수자에게 희망을
0~15세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책임, 국립대 등록금 무상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선에서 완주의지를 밝혔다.

심후보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 대선(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중도 사퇴)과 달리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국민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심후보의 최대 강점은 25년에 걸친 노동현장 경력이다. 1980년 구로공단 미싱사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래 2004년까지 한 길을 걸었다. 이후 전국급노동조합 사무처장을 거쳐 2004년 원내로 진입했고, 줄곧 진보정당에 몸담으며 진보진영의 대표 후보 자리까지 올라왔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곧 본인의 강점이 되는 셈이다.

임신·출산과 육아의 과중한 부담,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오롯이 경험한 여성 리더십이란 점도 손꼽힌다. 심 후보의 정책이 타 주자들에게 비해 구체적이고 선명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여기에 보통의 진보정당이 갖는 극단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오랜 기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지도와 호감도도 높아졌다.

하지만 진보정당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심후보에게 여전히 큰 산이다. 일차적으로 이념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대중화를 선택하면 당의 존재가치 자체가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역시 오랜 기간 동안 3%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에게 필수적인 고정지지층이 탄탄한 반면, 지역적 지지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캠프에선 정책 선명성을 통해 민주당 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중도 확장을 시도한 문 후보나 안희정 충남지사와는 달리, 이 시장은 정책노선이 명확해 탄탄한 고정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네거티브 난타전이 연일 계속될수록, 상대적으로 심 후보가 반사 이익을 꾀할 수 있다.

다만 두 후보의 지지율 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초박빙 구도로 흘러갈 경우, 진보 진영 내에서 문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단일화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엔 '심상정 지지=안철수 지지'라는 식의 프레임이 덧씌워 지지율 흡수를 중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시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100m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시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약국임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 743㎡ 전문병원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절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